

# (한)국어교육의 미래와 국제화의 과제

민현식(서울대 국어교육과)

## 1. 국어교육의 미래 환경: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

오늘날 한국의 교육은 세계적, 국가적 난제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힌 문제들도 있고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만이 부딪히는 상황도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로 이제는 인공지능사회, 빅데이터 시대가 열려 정보는 더욱 많아짐으로써 정보 선택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증기기관을 사용한 제1차 산업 혁명, 모터를 활용한 제2차 산업 혁명, 전자회로에 의한 아날로그 혁명인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에 있다. 초연결성, 초지능성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특징으로 기술이 사회와 심지어 인간의 신체에도 내장되는 새로운 방식을 대표하는 디지털 혁명 위에 구축되었다. 4차 산업 혁명은 로봇 공학, 인공 지능, 나노 기술, 생명 공학, 사물의 인터넷, 3D 인쇄 및 자율 차량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급부상한 인공지능과 학의 로봇 사회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과 로봇에 도리어 지배당하는 사회가 도래하여 인간의 노동을 로봇이 대체하고 인간이 다시 소외되는 사회를 예고하고 있다.<sup>1)</sup>4차 산업혁명기를 전망하면 다음 특징이 예상된다.

- 문명 충돌의 시대<sup>2)</sup>: 헌팅턴이 90년에 예언한 문명 충돌의 시대는 2001년 911테러로 실증되었고 오늘날 이슬람국가(IS)를 세워 폭력을 저지르고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을 유발시켜 서구사회에 몰려든 난민문제는 유럽 정치 지형을 변혁시키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북미주는 유대문명, 기독교문명, 이슬람 문명의 3대축이 예루살렘을 중심에 놓고 대회전을 벌이고 있고 아시아 황하문명과 일본의 神道 문명이 대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동북아 패권 전쟁에서 남북 대결도 동시에 벌이고 있다.

- 인구와 직업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이루어져 초중고교 정원 감축과 폐교가 속출하고, 대학 입학 지원자 감소와 교사 및 교수 감소가 예상된다. 인구 구조가 변화되면서 미래 직업의 변화는 과거의 인기 직업이 오늘의 비인기 직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교육환경의 변화: 원격 사이버 교육 환경의 증가로 전통적 지식 전수형 교육은 소멸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지식의 창의적 융복합을 위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기존 공교육은 위축되고 TED, K-MOOC형 공개강좌, 다양한 평생교육, 사교육의 혁신이 요구된다.

- 저성장 사회: 저성장 사회 속에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 구조 재편으로 전통적 일자리가 부

1)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회장 Klaus Schwab가 'Foreign Affairs'(2015년 12월)에 발표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에서 밝힌 내용이다.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2)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1993년 여름에 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문명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이란 글에서 나온 개념으로 세계는 주요 문명권끼리 충돌 또는 협력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헌팅턴이 설정한 문명권의 1차 기준은 '종교'로 기독교권, 러시아 정교권, 이슬람권, 유교권, 불교권, 힌두권으로 나누며 여기에 일본권, 라틴 남미권, 아프리카권이 추가된다(이희재 역 1997: 52-57).

족하고 신성장 산업 추진을 통한 신성장 직업 인력 양성 필요로 학문 체계의 재편 필요하다

- 초불확실성의 시대: 21세기는 초불확실성의 증가로 혼돈과 공포와 폭력의 증대가 우려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치 혼란이 급증하고 이는 선진국에도 밀어닥쳐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의 정치혁명 등이 벌어지고 미국도 트럼프 정치의 혼돈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엄청난 탄핵정국을 겪었다.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다.

- 불신과 분노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계층간 양극화가 극심해 정부와 정치에 대한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불만이 커져 양극화는 불신과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 기득권의 승자독식 현상이 한국에서도 소득격차를 만성화시키고 있다. 이기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섬김과 나눔의 복지 자본주의로 발전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도 독재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제도나 이론보다 인간성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도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 폭력과 테러의 시대: 종교, 인종, 계층간 불신, 증오, 혐오가 각종 폭력과 테러를 조장한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 복합 갈등의 시대: 인간 사회의 갈등이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라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더욱 협상하여 설득하고 양보하여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 세계적인 대변혁기에 한국은 국내 정치 경제의 불안정 요인, 동북아 4강을 둘러싼 외교적 불안정 요인, 북한의 핵도발 위협 요인 등 더 많은 불안정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 2. 문식성과 역량 중심의 국어교육

### 2.1. 문식성 중심의 국어교육

과거에는 국어과의 목표를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설정하였다. 전통적인 내용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성의 함양을, 80년대 이래의 기능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기능성(문식성) 함양을 추구하였다. 국제적 변화와 맞물려 서구에서부터 이민자 급증으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면서 문식성 저하 현상의 극복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모어교육의 목표가 집중되면서 문식성 논의가 활발해지면서<sup>3)</sup> 우리도 이에 맞추어 당연히 문식성 논의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문식성도 초기의 문자 해독능력을 넘어서 최근에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포괄하는 식으로 개념이 변화하였다. 졸고(2015)에 따르면 문식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 ① 단순(초보적) 문해력: 문자 해독, 숫자 해독의 초보 수준
- ② 기초적 문해력: 기초적 담화 독해 능력으로 산문 해독, 문서 해독, 수리 해독 능력
- ③ 기능적 문해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종합 능력
- ④ 전문적 문해력: 정치, 경제, 과학 등 제 분야별 영역 전문용어와 담화의 종합 이해력
- ⑤ 사회적 문해력(시민 소양):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 문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 능력

현재 OECD에서 제시하는 PIAAC 문식성의 개념은 다음 도표에서처럼 읽기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력의 3대 요소로 심화되어 있다(졸고 2015).<sup>4)</sup>

3) 미국에서는 낙오자 방지법(2001) 때문에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고 서구에서는 literacy를 추구하는 논의가 주류이다 보니 선진 구미 국가들조차 10-15%의 저문해자들로 인해 문식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투자가 활발하다. 국립국어원(2014) 참고.

4) OECD의 PIAAC 보고서에 명시된 literacy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Literacy: Literacy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se information from written texts in a variety of contexts to achieve goals and develop knowledge and potential. This is a

### Summary of assessment domains in the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Literacy ( <i>Reading Components</i> )	Numeracy	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s
Definition	Ability to understand, evaluate, use and engage with <i>written texts</i> to participate in society, to achieve one's goals, and to develop one's knowledge and potential.	Ability to access, use, interpret and communicate mathematical information and ideas in order to engage in and manage the mathematical demands of a range of situations in adult life.	Ability to use digital technology, communication tools and networks to acquire and evaluate information, communicate with others, and perform practical tasks.
Content	Texts are characterised by : Med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rint-based</i></li> <li>▶ <i>Digital</i></li> </ul> For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ontinuous or prose texts</i> (narration, argumentation or descriptions)</li> <li>▶ <i>Non-continuous or document texts</i> (tables, lists, graphs)</li> <li>▶ <i>Mixed texts</i> (combination of prose and document elements)</li> <li>▶ <i>Multiple texts</i> (juxtaposition or linking of independently generated elements)</li> </ul>	Mathematical content, information and id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Quantity and number</i></li> <li>▶ <i>Dimension and shape</i></li> <li>▶ <i>Pattern, relationships, change</i></li> <li>▶ <i>Data and chance</i></li> </ul> Representations of mathematical cont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bjects and pictures</i></li> <li>▶ <i>Numbers and symbols</i></li> <li>▶ <i>Diagrams, maps, graphs, tables</i></li> <li>▶ <i>Texts</i></li> <li>▶ <i>Technology-based displays</i></li> </ul>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Hardware devices</i></li> <li>▶ <i>Software applications</i></li> <li>▶ <i>Commands and functions</i></li> <li>▶ <i>Representations</i> (text, graphics, video)</li> </ul> Nature of probl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Intrinsic complexity</i> (number of steps, alternatives required for solution, complexity of computation and/or transformation, number of constraints)</li> <li>▶ <i>Explicitness of the problem statement</i> (largely unspecified or described in detail)</li> </ul>
Cognitive strate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cess and identify</li> <li>▶ Integrate and interpret (relating parts of text to one another)</li> <li>▶ Evaluate and reflect 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dentify, locate or access</li> <li>▶ Act upon and use (order, count, estimate, compute, measure, model)</li> <li>▶ Interpret, evaluate and analyse</li> <li>▶ Communicat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tting goals and monitoring progress</li> <li>▶ Planning</li> <li>▶ Acquiring and evaluating information</li> <li>▶ Using information</li> </ul>
Contex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li> <li>▶ Work-related</li> <li>▶ Community</li> <li>▶ Educ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veryday life</li> <li>▶ Work-related</li> <li>▶ Society &amp; Community</li> <li>▶ Educ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al</li> <li>▶ Work-related</li> <li>▶ Community</li> </ul>

이처럼 문식성의 개념이 확장되어 감은 사회 변화가 급변하는 정보 혁명 사회에서 단순히 문자 기반의 해득력, 독해력, 표현력 차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확장된 문해력 개념만으로 국어과 목표를 설정하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국어과의 기능성에만 머물고 국어과의 지식성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고 학문 융합 시대에 국어과의 외연을 넓히려면 문식성 기반의 국어교육에서 지식성도 강화하여 지식과 기능이 조화와 융합을 이루어 국어과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 2.2. 역량 중심의 국어교육

문식성 중심의 국어교육은 문자언어 기반의 언어교육 속성상 가장 적합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문식성 교육은 국어교육을 기능 중심으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어과의 기능 함양을 충실히 하려는 점에서는 분명히 실용적 목표임에는 틀림없으나 과연 이것이 국어교육 논의의 전부이어야 하는지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국어과는 단순히 기능 중심의

---

core requirement for developing higher-order skills and for positive economic and social outcome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reading literacy to be closely linked to positive outcomes at work, to social participation, and to lifelong learning.( )

교과가 아니라 국어과가 학문 특성상 다루는 지식이 있으므로 그 지식의 문제는 단순히 문식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적절한 개념이 '핵심 역량'이란 개념으로 나타났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융합 사고 역량

라. 세상을 보는 안목과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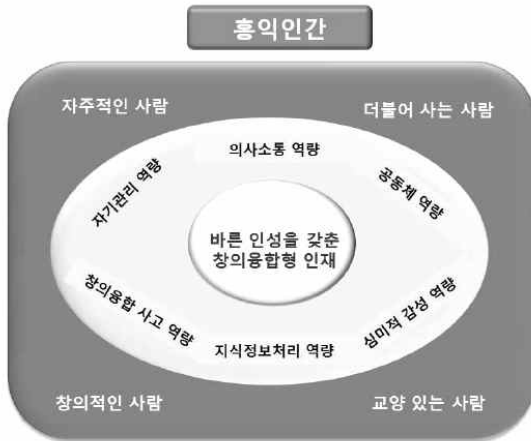
그리하여 이를 다음의 도표로 구조화하고 있다.

2015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편성하면서 고교 선택과목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하여 국어과는 일반 선택 과목에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을 두었고, 진로 선택 과목에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를 두었다. 이러한 2015 교육과정의 역량은 앞에서 국어교육의 성취에서 제시한 문식성, 정체성, 도덕성, 인문성의 개념과 통하는 것이다.

- 자주적 사람 ← 문식성, 정체성
- 더불어 사는 사람 ← 문식성, 도덕성
- 창의적 사람 ← 문식성, 인문성
- 교양 있는 사람 ← 문식성, 인문성

2015의 핵심 역량도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초 속성이 요구된다.

- 자기관리 역량 ← 정체성
- 지식정보처리 역량 ← (디지털) 문식성
- 창의융합 사고 역량 ← 문식성, 인문성
- 감성 역량 ← (예술) 인문성
- 의사소통 역량 ← 문식성
- 공동체 역량 ← 도덕성



이런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의 동향은 이미 미국의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 교육과정(2010)<sup>5)</sup>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졸고 2016).

- 미국 교육과정은 ‘①K-5, ②6-12, ③타 교과(역사, 사회, 과학, 전문 교과) 지원용’이라는 3단계 구조로 제시하였다.
- 미국 교육과정의 내용은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학문 목적과 직업 목적 준비(College and Career Readiness)의 두 가지 기초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직무 능력 교육과정을 고교 특수 과정에서나 다루어 대조적이다.
- 우리의 교육과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순서로 배열되는데 미국 교육과정은 읽기 우선 정책이 두드러지고 이어서 쓰기, 말하기, 듣기, 문법 영역의 순서로 되어 있다. 문법이 뒤에 있지만 읽기 교육에서 이미 읽기 교육을 위한 기초로 문자 및 표기법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문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읽기 교육에 집중하여 문해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전통이 있다. 우리도 초등학교생들이나 성인의 문해력이 높지 않아 초등학교 과정은 미국처럼 읽기 교육에 비중을 높게 두어야 한다.
- ‘문법’이 ‘Language’라는 이름으로 독립되어 있다. 과거에는 미국도 각 주의 교육과정에서 4영역 밑에 예속시켜 표시하던 ‘문법’ 영역을 이제는 독립 설정함으로써 ‘문법’ 영역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어 능력에서 발음, 표기, 어휘, 문장 등의 문법 능력 부실이 심각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21개 주가 주도하는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2009)<sup>6)</sup>에서는

5) 미국 연방정부가 발표한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State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 Literacy in History/Social Studies, Science, and Technical Subjects’ 참고. <http://www.corestandards.org/ELA-Literacy/>

21세기 학습자 역량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도 한다.

1. 내용교과<sup>7)</sup>와 21세기 주제(Content Knowledge and 21st Century Themes

- 교과목: ① English, reading or language arts ② World languages ③ Arts ④ Mathematics ⑤ Economics ⑥ Science ⑦ Geography ⑧ History ⑨ Government and Civics

- 주제(학제간): ① Global awareness ② Financial, economic, business and entrepreneurial literacy ③ Civic literacy ④ Health literacy ⑤ Environmental literacy

2. 학습 및 혁신 능력(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 ①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 ② 의사소통과 협동(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 ③ 창의성과 혁신성(Creativity and innovation)

3. 생애 및 경력 개발 능력(Life and Career Skills)

- ① 정보 소양(Information literacy)
- ② 매체 소양(Media literacy)
- ③ ICT 소양(ICT literacy)

4. 정보·미디어·테크놀로지 능력(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s)

- ① 융통성과 적응성(Flexibility and adaptability)
- ② 자기주도성(Initiative and self-direction)
- ③ 사회 및 문화상호성(Social and cross-cultural interaction)
- ④ 생산성과 책무성(Productivity and accountability)
- ⑤ 리더십과 책임(Leadership and respons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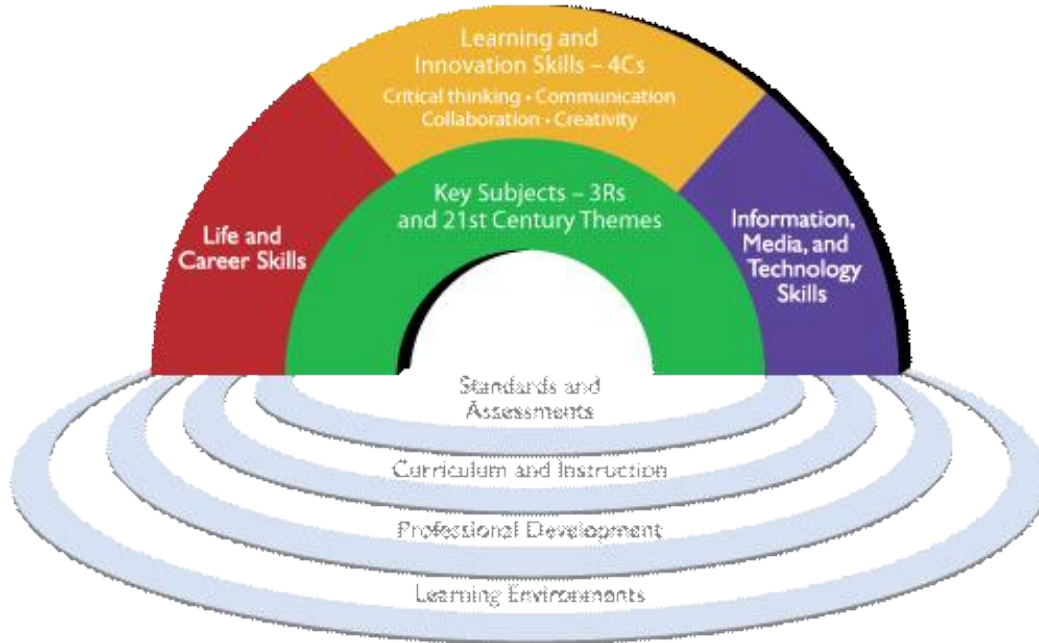
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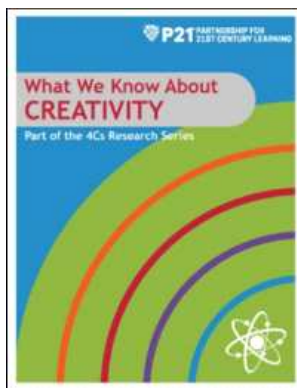
6) 21세기 학습자역량 참고 <http://www.p21.org/our-work/p21-framework>

7) 내용교과에서는 전통적인 3R(Read, wRite, aRithmetic) 중심의 교육을 해왔는데 21세기형 교육은 이에 머물지는 않는다.

**P21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21st Century Student Outcomes and Support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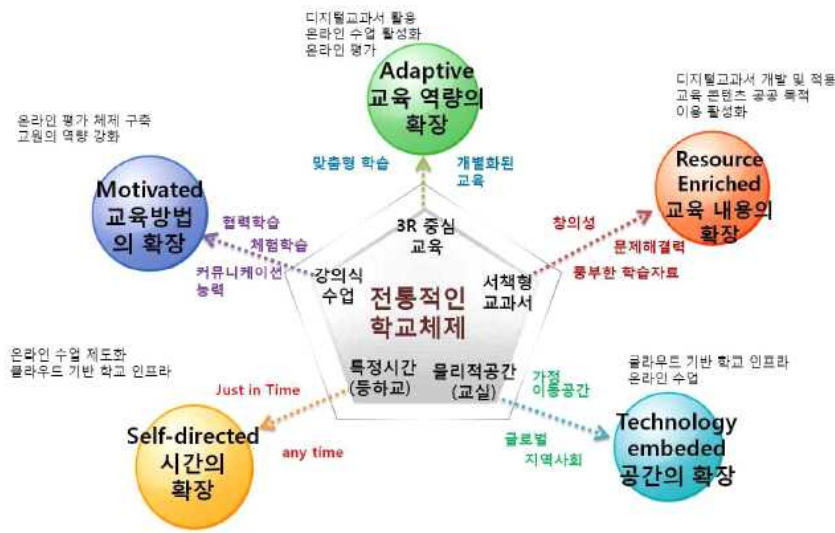
© 2007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 (P21)  
[www.p21.org/framework](http://www.p21.org/framework)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는 2011년 9월 ‘스마트교육 추진 실행 전략’을 발표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틀을 제시하였다. 공간, 시간, 교육내용, 교육역량, 교육방법의 측면에서 기존의 영역을 확대하고 개인이 선호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실시하여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가진 학습자를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육성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스마트교육 개념도이다.<sup>8)</sup>

8)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안)’ 참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에서는 미래 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을 탐색하면서 미래 사회에서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복합하며 타인과 화합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상이 요청된다고 하며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란 학교 혹은 사회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교육계 내부에서도 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역량 중심의 교과 정체성을 추구하여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학문 역량과 실무 역량의 두 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연방교육과정(2010)의 취지와 상통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의 미래 사회 대비 국어과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어과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핵심 역량 10개가 '의사소통능력 > 기초학습능력 >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 문제해결능력 > 대인관계능력 > 정보처리능력 > 문화예술향유능력 > 자기관리능력 > 시민의식 > 국제사회문화이해'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이중에서도 국어과 핵심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초학습능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정보처리능력', '문화예술향유능력' 7가지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10대 또는 7대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의 바탕에는 문식성, 정체성, 도덕성, 인문성(인성, 교양) 등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다.

① 문식성

- 기초 문식성(문자 문식성): 기초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 비판 문식성: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 매체 문식성: 정보처리능력

② 정체성

- 자아 정체성: 자기관리능력
- 대인 정체성: 대인관계능력
- 문화 정체성: 국제사회문화이해

③ 도덕성(윤리성): 시민의식

④ 인문성(인성, 교양): 문화예술향유능력



물론 위의 역량들은 중복 요소가 있으므로 위의 분류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가령 시민의식은 의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민의식을 도덕성으로만 볼 수 없고, 민주시민의 정체성으로 본다면 역사인식을 포함한 역사 정체성으로도 볼 수 있다. 오늘날 인성교육을 강조하는데 위 분류는 도덕 역량이 곧 인성(정직, 성실, 근면, 협동, 사랑, 용서, 섬김과 나눔, 배려...) 교육의 함양이므로 도덕 윤리교육과 함께 국어과도 이에 기여하는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재조정하고 보면 기존 문식성 중심의 국어교육과 미래의 역량 중심의 국어교육을 전통의 단절 없이 묶을 수 있게 된다.

### 3. 미래 국어교육의 과제

앞에서 우리는 미래 국어교육의 과제를 역량 중심으로 보고 그 역량이 문식성, 정체성, 도덕성, 인문성과 통한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이에 따라 미래 국어과의 교육도 기존 국어교육의 전통과 성과를 존중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 3.1. 신교과관 정립의 과제

국어교육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국어교육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국어과는 도구 교과, 사고 교과, 지식(내용) 교과, 인성 교과, 예술 교과 등의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교과관의 뼈대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교육 환경이 매체 문식성을 함양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있으므로 기존 교과관은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 복합매체 시대의 언어생활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한다.

도구 교과: 국어과의 도구 교과로서의 기능은 불변하다. 그러나 언어 매체가 다변화하고 소통 방식이 다변화하므로 그에 걸맞은 도구 교과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것은 매체 사용 능력을 높이는 도구 문식성의 측면이다. 특히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모두 매체(디지털) 읽기, 매체 쓰기, 매체 말하기, 매체 듣기, 매체 문학 방식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어 기존 교과 내용에서도 매체 문식성 함양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여야 한다.

사고 교과: 국어과는 개인이 언어를 도구로 하여 개인의 사고력을 높이는 교과이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가 언어의 발명 - 언어 구술시대 - 언어 문자화 시대(양피지, 점토판, 종이 기록시대) - 인쇄 시대 - 신문, 방송 매체 시대 - 컴퓨터 인터넷 매체 시대 - 복합다매체 시대로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서책에 의한 사고력을 함양하였는데 신세대는 서책보다도 인터넷이라는 영상 복합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체질화한 영상 사고 세대가 되어 두뇌 자체가 달라진 세대이므로 그에 맞는 사고력 조정이 필요하다. 도서 세대에게는 발달하였지만 영상 세대에게는 덜 발달한 뇌 기능을 발달시키려면 종이 독해 훈련이 필요하고 영상 독해는 절제해야 한다(임철성 2017).<sup>9)</sup>

지식 교과: 국어과는 다양한 주제의 글감을 읽고 토론하도록 읽기 훈련을 기본으로 한다. 국어과는 독서, 화법, 작문, 문학, 문법이 모두 고유 지식 체계를 가지는데 이제는 그 지식의 범위가 전 지구적(글로벌) 주제로 확장되었다. 기존 주제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전 지구적 주제를 국어과의 학습장으로 가져와서 교과서 글감으로, 토론 주제로 다루어야 하므로 21세기 신지식사회에 걸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전술한 미국의 '21 동반 교육선언'의 내용에 기본 교과목과 함께 '신주제'라고 한 것은 이런 점을 보여 준다. 이는 기

9) 임철성(2017)은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는 두뇌가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존의 교과서 개발 시 ‘환경, 안전, 통일, 복지...’ 등과 같은 범교과 주제나 제재의 편찬과 동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인성 교과: 21세기는 초불확실성의 증가로 혼돈과 공포와 폭력의 증대가 우려된다. 미디어 사회의 다양화로 인성이 메말라지고 불신과 불안은 증대되어 정신 불안을 달래려는 인터넷, 마약, 게임, 도박 중독자는 폭증하고 인터넷 폐인, 마약사범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정신과 질환도 증가하여 인성 교육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국어과도 전 교과에 부여된 인성 교육을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예술 교과: 국어과는 전통적으로 문학예술 기능이 핵심 교육으로 존재해 왔으므로 문학예술 기능을 강화함은 당연한데 특히 복합 매체 시대를 맞아 복합 양식의 장르를 이해하고 표현 제작할 수 있도록 복합 매체의 도구를 다루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3.2. 신문식성(New Literacy) 함양의 과제

신문식성은 크게 문자 문식성과 매체(디지털) 문식성으로 나눈다.

#### 3.2.1. 문자 문식성의 강화

##### (1) 한글 문식성의 강화

해방 이후에도 1980년대까지도 주류 지식 문체는 국한혼용체이었으며 한자 학습이 국어교육의 중심이었다. 한자 학습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한글전용정책이 강화되면서 초등 한자교육이 폐지되고 한문과가 국어과에서 독립 부과되면서이며 1993년부터 시작된 대입수능시험에서는 한자 평가를 지식으로 간주하고 언어능력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벌어져 결국 국어과 평가에서는 한자 평가를 완전 제거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이는 현재까지도 한자가 제거된 국어교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덩달아 1990년대부터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글 문서 편집(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 한글체의 정착은 급속히 이루어지게 되어 한글체가 지식 문체의 중심이 된 것은 1990년대 컴퓨터 혁명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한글체의 확산으로 비록 한자 문맹은 가속화하였지만 한글체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국어교육 덕분에 국민의 문식성은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글체가 교과서, 학술서, 언론의 문체로 정착되면서 우리도 새로운 형태의 한글 문맹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비록 한글체가 정착되었더라도 고난도 한자어의 뜻을 정확히 몰라 난독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이는 영상 매체의 확산으로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는 로마자 알파벳과 같은 음소문자 사용국가의 국민이 부딪히는 보편적 현상인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게 되었다. 서구는 오늘날 준 문맹자가 국민의 10-15% 수준이라 하는데<sup>10)</sup> 이는 알파벳을 읽고 쓸 줄 알지만 문단, 담화 텍스트 차원에서 전문어가 많아질수록 독해력이 현저히 낮아져 글의 줄거리 요약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서구 국가들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문맹퇴치에 열심이다.<sup>11)</sup>

오늘날은 인간사회의 신문물제도가 분화, 심화되고 전문어가 증가하면서 선진국 시민조차 독해력은 현저히 낮아져 경제 금융, 제도 법률, 정보과학 등의 분야에서는 ‘금융 문맹, 법률 문맹, 과학 문맹, 스포츠 문맹’ 등의 말이 나올 정도로 문맹 상태가 증가하였다.

OECD(2013)의 ‘국<sup>12)</sup>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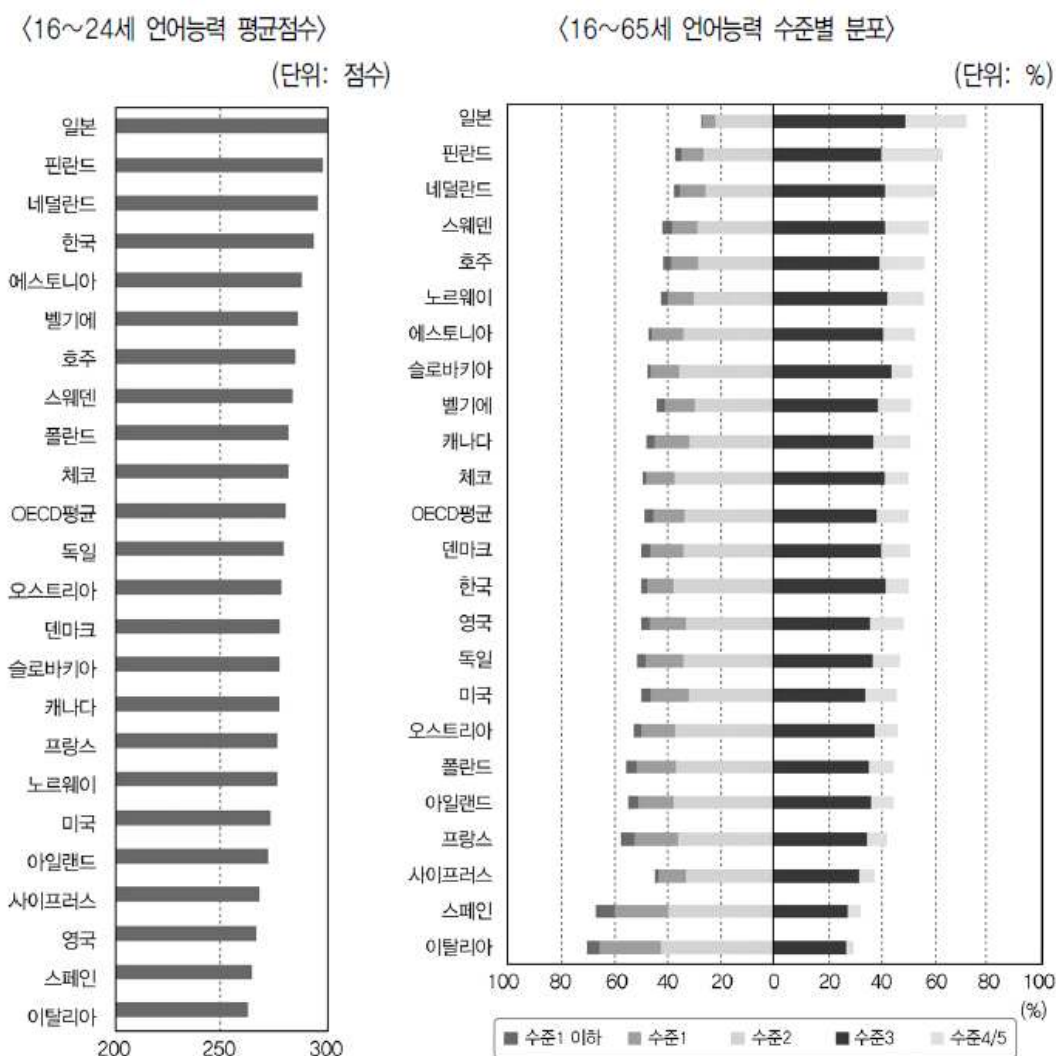
10) 서구 알파벳 문명의 문맹률에 대한 논의는 국립국어원(2014)에서 거행된 바 있는 문식성(literacy) 국제학술회의에서 참가한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 등지의 문식성 전문가들이 밝힌 이들 국가들의 문맹 퇴치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다.

11) 서구의 주요 문해교육 정책 사례는 졸고(2014) 참고.

12)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문제 해결력(Problem-Solving) 문항으로 구성된 제1회 PIAAC 조

Adult Competencies)에 따르면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문제해결력(Problem-Solving) 문항으로 구성된 제1회 PIAAC 조사가 한국 등 24개국에서 2012년 실시되었고, 2013년 나온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언어 능력은 평균 273점(500점 만점)으로 OECD 평균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6~24세 연령대의 평균 점수는 전체 4위로 상위권이지만 35~44세 연령대부터는 OECD 평균보다 점수가 낮고, 55~65세 연령대의 평균 점수는 24개국 중 21위에 머물렀다. 최고 연령층(55~65세)과 최저 연령대(16~24세) 간의 점수 차이는 참여국 중에서 가장 커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중장년기를 고려한 평생국어교육의 대책이 요구된다.

<2013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국제비교>



주: 국제 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자료: 교육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1차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결과 발표(2013.10.)

사가 한국 등 24개국에서 2012년 실시되었고, 2013년 결과가 나왔다.

국립국어원(2013)의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에서는 ‘우수 11.9%, 보통 33.4%, 기초 45.9%, 기초 미달 8.8%’의 네 단계로 분포되었는데 ‘기초, 기초 미달’ 해당자를 합하면 54.7%에 이르러 우리나라도 준문맹자의 증가는 우려스럽다.

영역	수준	기준 점수	명	%
전체 국어 능력	우수	781.2 이상	347	11.9
	보통	579.7 이상	975	33.4
	기초	372.0 이상	1,338	45.9
	기초 미달	372.0 미만	256	8.8
계			2,916	100.0

<국민의 국어 능력의 수준 등급의 영역별 분포>

이미 우리의 학교 교실에서도 한글을 읽을 줄 알지만 글의 줄거리를 요약할 줄 모르는 신문맹아들이 초중고교 교실에 나타나 학습 부진아가 되고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진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sup>13)</sup>

## (2) 한자 문식성의 강화

한글에 대한 과도한 문자 민족주의 경향, 한자 비하의 편견<sup>14)</sup>, 광고 등에서의 알파벳의 범람은 국민의 일반적 문자관이 혼돈 가운데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한글전용이 일반화하면서 전통 한국어의 토대가 된 한자 비하와 한자교육의 枯死 상태는 전반적인 국어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물론 PISA 능력 평가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능력이 상위권이라는 안도감도 존재하여 한자 없는 국어교육의 결과로는 우수한 편이라고 낙관하기도 하지만 전통 한자 한문 문화에 대한 문식성이 낮아지고 한자 한문을 알아야 유리한 고전 한국학 분야의 전공에서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어려움을 겪음은 국가적 문화 말살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무엇보다도 자기 이름 석자를 쓸 줄 알았던 혼용체 세대가 물러가고 한글전용세대가 대두된 오늘날 국가의 미래를 점검하며 한자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국어 교육과 어문정책은 오히려 한글전용으로 인해 한자문화를 고사시키고 있다. 최근에만도 국립국어원(2005, 2010, 2015)에 의해 국민 80% 안팎으로 한자교육을 초등학교 시절에 해 달라고 요구하는 조사와 연구가 세 번씩이나 이루어졌는데 정부는 한자교육을 초등학교 비정규 교육인 창의체험활동의 재량교육 수준으로 하고 한글전용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 교육의 내용이 한글전용체 자료로 좁혀지고 역사적 깊이도 반만년 한자문화를 포함하는 국어문화의 시각을 잃어버린 채 500년 한글문화만 다루게 되어 溫故而知新的의 교육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13) 이런 신문맹 현상은 엄훈(2011)에서 강남 지역 중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가서 목격하고 지도한 사례를 체험적으로 밝히고 이들 학생들에 대해 교사들도 잘 모르고 부모들은 더더욱 몰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4) 편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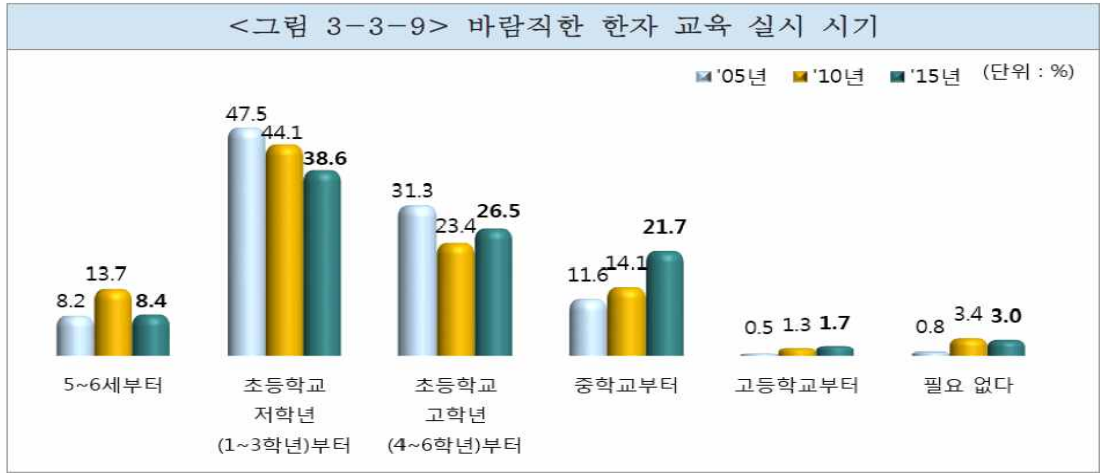
① 편견 1: 한자는 중국에서 만들어 사용한 글자이다.

=> 조상들도 사용한 전통 국자이다. 이두 등에 사용한 한국식 한자도 1000여자가 된다.

② 편견 2: 한자는 상형문자로 한글보다 열등하고 수많은 글자 수요를 보이므로 배우고 익히기가 어렵다. => 한자도 표음문자 요소가 있다. 표음부와 표의부가 결합한 형성 원리의 한자가 90%나 된다.

③ 편견 3: 한자를 쓰던 조선 사대부층의 잘못으로 망국에 이르렀다. => 한문 사대부층의 사대주의와 부패로 나라가 망한 것이다. 한자를 사용한 일본은 세계 강국이 되었다.

<그림 3-3-9>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특히 독서 교육의 기초는 표기법의 이해로 표기법을 이해해야 독서 능력도 발달하는 것이므로 서구에서는 음운 표기 교육(phonics)을 독서 교육의 기초로 접근하는데 우리는 표기법 이해 교육이 매우 부실하여 체계적 표기 규범 지도가 없다.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자 이해는 물론 한자어 이해교육도 필요하므로 한글전용 정책 속에서도 한자 및 한문교육은 반드시 일우어져야 한다. 허성도(1999)에 따르면 중국의 四書 경전에 나오는 한자 1,080자면 四書의 95%를 이해한다고 하므로 교육용 한자 1800자만 익혀도 웬만한 四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소학교 3000자, 중학교까지 3500자의 상용한자를 가르치고, 일본의 교육한자는 소학교 1,006자, 중학교 1,130자 총 2,136자이다. 한국은 중학 900자, 고교 900자 합 1800자의 교육용 한자를 가르치고, 대만은 소학교 2700자, 중학교 4500자를 가르친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우리의 한자문화를 잘 전승, 발전시키고 중국, 일본의 한자문화를 이해하려면 중국과 일본의 한자문화를 알아야 하므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漢字教育은 유익하다. 유럽 연합(EU)은 학생들에게 ‘母語 + 2개 外國語’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과 경쟁하여 생존하려면 공교육에서 국어 교육과 漢字教育을 강화해야 한다.

### 3.2.2. 디지털 문식성의 강화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이미 컴퓨터 사회, 정보 혁명의 사회를 살게 되었다. 오늘날은 정보화 사회가 매체(미디어)의 발달로 매체 혁명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 매체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가리키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소통을 위해 발명되고 있는 매체 기기의 개념까지 가리키므로 이를 잘 구별해서 이해하여야 한다.<sup>15)</sup>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총체적 생활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매체 혁명의 시대는 이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를 거쳐 시작한 것으로 1990년대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매체 기기의 변화가 계속 진화하면서 기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하며 매체 문화 전반이 인간에게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매체 기기의 변화는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매체 문화와 매체 언어문화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때 긍정적 순기능과 부정적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므로 인간은 부정적 역기능을 줄이고 긍정적 순기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졸

15) 매체의 정의, 개념, 특성은 매체를 1차, 2차, 3차 매체로 구분한 이병규(2015), 디지털의 속성을 다중성, 하이퍼텍스트성, 쌍방향성, 사회적 연결성으로 정리한 임철성(2017) 참고.

고 2005). 특히 인터넷 언어, 디지털 언어, 매체 언어, 통신언어라고 불리는 매체를 통한 언어 사용은 국어 규범 파괴의 양상이 심각하여 국어 규범 문법의 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비치고 있다.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매체 교육이 교육의 중대한 현안이 되었고 국어과에도 개정 2007년에서 ‘매체’ 과목을 신설하였다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실패하고 도중하차한 지 8년 만에 2015 교육과정에서 ‘언어와 매체’가 교과목으로 신설되었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와 매체’ 과목 외에 선택과정에서 ‘정보’라는 교과가 개설되었으나 ‘매체’와는 구별되는 교과이다. 매체는 실제로 사회과, 도덕 윤리과를 중심으로 모든 교과에서 교과 내용으로나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다루고 있으나 국어과는 매체 언어의 문제를 다루는 점을 특화해야 한다. 따라서 매체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보다 방송 매체, 대중 매체 등의 매체 언어에 대한 비판적 문식성을 기르고 매체 및 매체언어의 윤리까지 함양하도록 하는 디지털 문식성(digital literacy: digeracy)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언어와 매체’는 문법을 언어로 바꿔 매체와 결합한 과목이라 이질성이 불가피하다. ‘매체’ 교과가 사회과학의 언론정보학에서 다루는 내용과 상당히 연계되고 학문적 논의가 국어학이나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급한 과제는 국어교육학에서 다룰 근거와 학문적 독자성이나 학문적 융복합성을 심화시켜야 한다. 특히 언론정보학의 학문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문적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왕 ‘언어와 매체’를 만든 이상 국어과만의 매체언어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마치 전통적 문자 문해 교육을 추구할 때는 모어 교육 차원에서 ‘국어과’가 도구, 기능, 내용 교과역할을 갖고 있었듯이 디지털 매체 시대에는 ‘매체’ 교과가 전 교과의 도구, 사고, 내용, 예술, 인문 교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매체, 디지털, 인터넷, 사이버’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는 양상이 있어 매체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에서 다룰 ‘매체’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으니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소양)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C. Tagg(2015:112-113)에서는 매체 문식성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기도 한다.

#### ① 기술에의 초점

- a. 기술적 리터러시: 컴퓨터, 인터넷에 사용 능력.
- b. 모바일 리터러시: 무선 기술과 모바일 기기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
- c. 코드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② 언어에의 초점

- a. 문자(texting) 리터러시: 말줄이기(textese)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b. 인쇄(print) 리터러시: 온라인 장르들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c. 하이퍼텍스트 리터러시: 새로운 매체(new media) 문서에 하이퍼링크를 추가하는 능력.
- d. 시각적 및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사진과 소리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 ③ 정보에의 초점

- a. 검색(search) 리터러시: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능력.
- b. 태그(tagging) 리터러시: 찾기 쉽게 즐겨찾기 설정하고 활용하는 능력.
- c. 필터링(filter) 리터러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
- d. 정보 리터러시: 정보와 웹사이트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 ④ 연결에의 초점

- a. 개인적(personal) 리터러시: 자신을 온라인에 나타내고 자신의 디지털 정보 관리 능력.
- b. 통신망(network) 리터러시: 정보를 거르고 SNS 사용하는 능력
- c. 참여적(participatory) 리터러시: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하고 편집하는 능력
- d. 문화적/문화간(cultural/intercultural) 리터러시: 타인과 디지털 협업하는 능력

한편 이번에 나온 2015 고교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은 매체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언어의 윤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추가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어과에서는 매체언어의 부정적 현상 즉 규범 파괴 표현과 언어 윤리 파괴 현상을 예방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각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모바일 중독이라든가 언어 윤리 파괴 등도 예방하는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디지털 읽기에서도 종이독서와 달리 정보의 신속한 습득을 위해 정보를 편식하는 현상의 결과로 디지털 발췌독 현상이 만연해 있다. 그럴수록 통독, 정독 등의 전통적 독서 훈련이 필요하다.

### 3.3. 신정체성(New Identity) 함양의 과제

지금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한국어 기반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문제와 더불어 열린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새롭게 강화해야 할 정체성 교육이 통일 대한민국의 정체성 형성과 다문화 사회를 향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이다. 정체성 교육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졸고 2012).

- ① 언어 정체성: 한민족의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열등감의 정도로 나타난다. 표준어 정체성, 방언권에 따른 방언에 대한 자부심이나 열등감의 정도가 개인별로 나타난다.
- ② 민족 정체성: 단군의 후손이라는 한민족의 정체성이다. 다문화사회에서는 민족 정체성이 배타적으로 작용하기 쉬워 박애주의적 인류애의 보편적 정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③ 의식주 생활 정체성: 동질적인 의식주 문화를 공유하는 정체성으로 민속문화적 정체성으로도 나타난다.
- ④ 국민 의식 정체성(국민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는 정체성으로 자부심 또는 열등감으로 나타난다.
- ⑤ 종교 정체성: 유교, 불교, 기독교(천주교) 등의 종교적 공감과 존중의 정도를 가리킨다.
- ⑥ 역사 정체성: 민족사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나 열등감의 정도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국사 교과서 검정 파동은 한민족사와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에는 아직도 학계 내부와 국민 내부의 공감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⑦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이나 열등감의 정도를 보여 준다.

이제 21세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강화될 것이 다음 두 가지 요소이다.

- ⑧ 다문화 정체성: 이는 다문화사회에서 타 민족을 배척 차별하지 않고 공존공영을 모색하며 약소민족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로 이는 결국 인간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박애) 정체성이다. 현대사회처럼 인종, 민족, 국가간 갈등이 극심한 시대에는 인간으로서의 윤리적 자각



을 갖고 보편적 인류에 대한 사랑(인류애)를 기반으로 한 박애주의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류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하는 문제는 민족 정체성 및 국가 정체성 교육과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족, 국가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인류 보편적 인류애적 세계 시민 정체성은 현대사회에서 어려서부터 형성시켜 인종, 피부 등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어과에서라면 세계 각국의 문학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교과서의 세계문학 작품이 선진국 위주의 전형적 문학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 세계문학의 시야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학습량을 줄이도록 하다 보니 세계문학의 소개가 줄어들어 오히려 세계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크므로 필수과목이나 고교 선택과목의 '독서', '문학', '고전'에서 세계의 고전을 많이 소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중국, 미국, 유럽 중심의 세계문학을 넘어 갈등관계에 있는 일본문학, 주요 무역대상국인 베트남,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문학에까지 수록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㉔ 통일 정체성: 이는 위의 민족, 국가, 역사 정체성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민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을 뜻한다. 통일을 대박이라고 보는 긍정적 미래주의자와 통일은 재앙이라고 보는 비관론자의 사이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 태도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이 세계 경제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통일한국이 동북 3성의 경제권과 러시아 연해주 경제권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중국 내륙 경제와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 주변부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유럽 3억 경제, 미국 3억 경제보다도 더 큰 경제권을 형성시킬 것이라 한다. 남북한 8천만, 동북 3성 및 중국 13억, 일본 1억 2천의 동북아 경제가 훨씬 더 역동적 경제권이 되므로 이런 거대 경제권의 태동을 막고 있는 남북분단은 시급히 타파해야 한다. 염돈재(2010:343-347)에서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하나, 통일은 민족적 책무다.

둘, 분단에 따른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셋, 통일은 민족 자부심 고양의 계기가 된다.

넷,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다섯, 세계 강대국이 되어 후손들이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여섯, 분단에 따른 각종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곱, 한반도 통일로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흔히 통일 비용이 엄청나다는 논리가 횡행하여 한국 청소년들에게까지 통일 거부감이 확산되었지만 통일 비용보다 통일 이득이 남북한과 주변국에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부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어문학자들의 연구 교류는 남북통일의 인식 증진을 위해서라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어과에서도 이제는 한 학기에 또는 2,3년에 한 번 한 소단원 정도로 가볍게 가르치고 있는 북한 언어문화의 이해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 탈북자들의 현실을 다루는 글감도 필요하다. 탈북동포 문제는 통일 후의 한국 문제를 미리 선행 체험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남북통일 후에 남북 지역 갈등이 새로 추가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도 국가 지도자, 정치인, 교육자, 기업인, 군인, 경찰 등 직업별로 어떤 태도로 통일을 대비할 것인지 다루

어야 할 것이다. 솔제니친의 문학에 비견되는 재북 작가로 북한 독재의 실상을 다룬 ‘고발’과 같은 작품이나 탈북민이나 탈북 청소년의 삶을 다루는 글감도 다룰 필요가 있다.

### 3.4. 신도덕성(New Morality) 함양의 과제

21세기의 교육은 인성 교육을 함양하자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 윤리, 사회 윤리, 기업 윤리, 학문 윤리, 직업 윤리 등 제 분야에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가족 윤리, 성 윤리 등에서는 2000년 이래로 동성애 허용 여부의 논쟁이 서구에서 벌어져 서구 20여 국가는 이미 동성애 허용 국가로 변하였다. 기업 윤리 문제는 경제 정의와 연결되는 문제라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학문 윤리는 저작권 보호, 표절 금지 등으로 학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화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에 걸맞은 새로운 도덕 윤리 의식의 고양ی 필요하다. 도덕 사회 속에서 도덕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할 때 도덕성의 함양은 여러 측면에서 분절적 기능 반복 훈련의 교과서만으로는 도덕성(인성) 능력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능 통합을 할수록 어떤 글감, 어떤 장르의 명문을 선정하여 기능 통합을 하여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을 ‘주제(내용) 접근 국어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국어과가 다루어야 할 내용에는 ‘核心 知識’(core knowledge)과 ‘主題 知識’(topical knowledge)이 있다(Purpura 2004). ‘핵심 지식’은 국어과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핵심적 학문 지식 체계를 말하며 교과 내적 지식 또는 영역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어과의 고유 지식으로 다른 교과가 제공할 수 없는 지식 체계이며 국어과답게 해 주는 지식들이다.

반면에 ‘주제 지식’은 아동을 한 인격적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목표로 하는 신관, 인간관, 내세관, 도덕관, 역사관 등의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가리킨다. 각 교과는 핵심 지식을 토대로 국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주제 지식(세계관)에 맞는 각 교과별 주제 지식을 만들어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자료(교과서)로 구현하여야 한다. 앞으로 주제의식의 개발은 국어과를 도덕 윤리 교과와 대등하게 인간의 인성 교육에 일정하게 기여하는 교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다.

### 3.5. 신인문성(신교양, New Humanity) 함양의 과제

국어과는 인간의 인문성 즉 언어,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교양을 함양하는 교과이기도 하다. 이는 앞에서 말한 3.4.의 신도덕성 함양과 연계되는 문제이다. 단지 도덕성은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인문성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이라는 인문학의 독서 교양을 통해 형성되는 역량이다. 물론 이런 역량을 통해 도덕성도 함양되므로 도덕성과 인문성은 상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도덕성은 의지의 수련이 매우 중요하므로 독서를 통한 교양 함양만으로는 부족하다.

21세기 국어교육은 독서 교육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인간의 뇌와 관련하여 이미 우뇌와 좌뇌가 그 역할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여 우뇌는 시각적, 본능적, 즉각적, 감각적이고 좌뇌는 이성적, 분석적, 논리적, 개념적, 추상적이다. 그런데 영상세대는 영상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우뇌가 발달하고 좌뇌가 덜 발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문자 교재 교육이나 암송 교육 같은 고전적 독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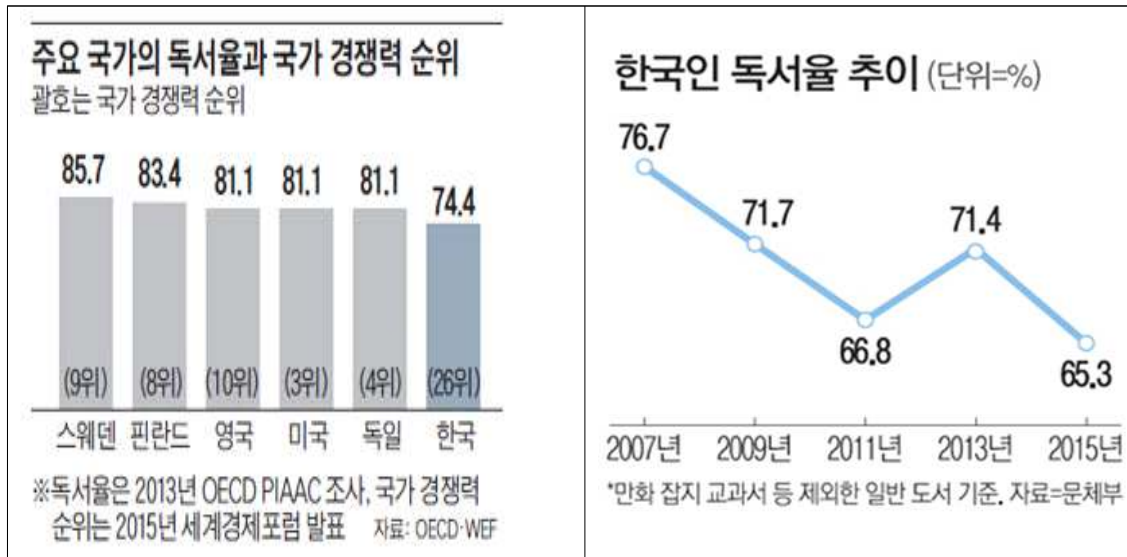
특히 디지털시대의 읽기가 전통 독서처럼 고전을 암송하거나 정독하는 독서가 아니고 빅데이터 시대의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를 바르게 선별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보니 발췌독을

하는 경향이 높기에 읽기 훈련은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국어교육의 읽기는 전통 읽기와 디지털 읽기를 병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독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독서 문화는 문화관광부의 '2016 독서백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1)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은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 성인 독서율 65.3%, 학생 독서율 94.9%로 2013년보다 성인 6.1%, 학생 1.1% 감소
- 성인 연평균 독서량은 9.1권으로 0.1권 하락, 독서시간도 평일 22.8분, 주말 25.3분
- 독서자 기준의 평균 독서량은 2013년 12.9권에서 2015년 14.0권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독서인구는 줄었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더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2009년)에서 한국 학생들은 독해 부문(reading)에서 2위이지만 교과서와 참고서를 뺀 독서량 순위는 16위로 38.5%의 학생이 학업 이외에는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고교생인 17~19세 한국인의 읽기 능력은 여전히 높아,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대학에 입학 이후인 20세부터는 5위 안팎으로 떨어지고, 35세 이후부터는 문제가 심각해 만 35~44세 한국 성인 남성의 읽기 역량은 OECD 평균 이하이고 만 45세부터는 OECD 평균과 떨어져 최하위 그룹(21개 국가 중 17위)으로 추락했다. 만 55세부터는 21개 국가 중 19위를 차지해 꼴찌에서 셋째였다.



(2) 국가경쟁력과 독서능력: '독서율 80%'의 미국, 영국, 독일은 국가경쟁력·혁신지수 등이 최상위권인데 국민의 35%가 1년에 한권도 안 읽는 한국은 국가경쟁력 26위로 15계단이나 추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독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연평균 독서율(수험서·만화 등 제외하고 연간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은 여러 경제 지표·지수 중에서도 특히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나 '경제적 혁신성 지수'(이상 세계경제포럼 발표), '글로벌 기업가(企業家) 정신 지수'(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 발표) 등과 밀접하게 연동된다.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는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가 기업가 정신을 끌어올리는 필수 요소

인데 우리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독서 강국' 스웨덴, 덴마크, 영국·미국·독일 등은 각종 경제 지표도 높다. 2015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만 놓고 봐도 미국(3위)·독일(4위)·스웨덴(9위)·영국(10위)·덴마크(12위) 등은 최고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다. 미래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면 독서 습관을 키우고 독서열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 4. (한)국어교육의 국제화 과제

### 4.1. 국어교육의 국제화

우리는 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우리의 장점도 자부심을 갖고 알려야겠지만 외국의 좋은 모어교육의 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다음 몇 가지를 추천한다.

#### 4.1.1. 독일의 행복 교육

우리도 지난 정부에서 '국민행복'을 국정지표로 설정하여 배우는 학생도 행복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행복한 교육을 위해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비롯하여 행복교육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선행학습의 풍조와 객관식 평가의 수능 입시 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실의 교수학습에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독일의 교육 현장의 특성을 살펴보자.<sup>16)</sup>

“초등학교는 6년제 일부 지역을 빼면 대부분 4년제로 4년간 담임이 바뀌지 않는다. 4년 마치고 진로를 결정해 진학한다. 인문계 김나지움(우리보다 1년 길어 13학년에 졸업), 실업계는 10학년에 졸업하는 레알슐레, 9학년에 졸업하는 하우프트슐레로 나뉜다. 실업계 졸업자는 ‘아우스빌둥(Ausbildung)’이라는 3년제 직업교육을 마이스터 밑에서 현장 실습으로 받는다. 졸업 시험 합격하면 ‘게젤레’가 되고 다시 3년 게젤레로 일하면 마이스터에 도전한다. 인문계는 김나지움 졸업 후 ‘아비투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아비투어는 13학년말 시험과 11,12학년의 학교 내신 성적을 합산한 점수이다. 고교에서는 독어, 수학, 외국어 등을 배우는데 선택과목 중에는 종교, 철학, 문학 중에 하나 선택하는 과정이 있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40% 수준이며 학력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적다.

성적표는 등수가 없고 일제고사가 없다. 인재 1명이 1만 명 먹인다는 영재 논리를 거부한다. 소수의 우등생 아닌 다수의 하위권 학생을 끌어올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이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교육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가는 교육이다. 뒤처지는 학교는 격차 줄이는 교육에 치중한다. 지식 위주의 등수 교육은 실패자나 꼴찌를 낙인찍어 양성하는 교육으로 학생의 잠재력과 무관하게 실패 낙인찍는 교육이므로 사라져야 한다.

학교 점수는 1-6점으로 나뉘 1점은 반에서 한두 명 정도, 2점이 약간명, 3점이 대부분으로 befriedigend(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평점, 4점은 주의, 5,6점은 낙제점으로 유급시킨다. 기업은 1점보다 2점을 선호하며 성적 우수자는 동료와 부조화 우려해 조직 걸림돌로 꺼린다. 학교에서도 1점 학생을 주목하지 않는다. 성적 좋으면 버릇없기 쉬워 꺼린다. 교사는 3,4점 아이에게만 주목하며 2점 수준으로 유도하면 교육의 성공으로 간주한다.

16) 독일 교육에 대해서는 김봉순(2004), 박성숙(2010), 박성숙의 블로그 ‘독일 교육 이야기’ 참고. 최근 조선일보(2017.03.22.) [사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5] ‘선행학습 없는 독일 교실’ 연재 참고.

한국은 상위권 위주의 수업이지만 독일은 중하위권 위주의 수업이다. 우수한 학생이 냉대받는 교육이다. 경쟁 없이 행복 꿈꿀 수 있는 교육이며 경쟁보다는 함께 어울려야 행복하다는 교육을 받는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교육, 몇 개의 쉬운 단어로 영어회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학교는 자유롭게 놀며 다니는 곳이다.

배우지 않은 것을 시험에 내면 안 되며, 한국은 변별력 높이려고 비교 우위 경쟁 때문에 안 배운 것에서 출제하여 선행학습 부추기지만 독일은 반대이다. 한국은 예복습 철저히 하라고 하지만 예습은 교사 무시 행위로 간주해 예습해 오지 못하게 한다. 예습 선행학습은 타 학생 학습의욕 저하 행위로 간주되며 공부 잘하면 오히려 월반시킨다고 겁주는 곳이 학교이다. 월반해서 못 따라가면 다시 낙제로 악순환한다고 경고한다. 예습해야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념이다. 한국의 학교는 학원에서 선행학습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독일은 문자 교육이 늦고 조기 문자 교육 금지해 초등학교 입학해도 책 못 읽지만 입학하면 금세 읽게 된다. 한국 초등 1년생은 1-100까지 세는 수준인데 독일은 알파벳부터 시작해 1-20까지 세는 것으로 1년을 보내 답답할 지경이다.

독일의 국어교육은 비평가 분석이 중심이다. 작문은 초등 3학년부턴 시작하여 대입작문까지 이어진다. 초등 4학년이면 우화 한 편을 쓰게 된다. 영어 시간에 비틀즈 노래를 심층 분석한다. 저학년에서는 문법과 맞춤법이 중시되나 6학년이면 문법보다 작문 수준이 중시된다.

독일의 영재는 놀지 못하고 피나는 고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학경시대회는 영재성 있는 아이가 참가하는 것이 따로 준비할 일이 아니다. 우등생은 스스로 잘하고 대학 가서도 하므로 주 교육 대상 아니다.

시험은 시험 기간 없이 불시에 본다. 이유는벼락공부로 성적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 평소 실력 보기 위함도 아니며, 학생 스트레스 받을까 봐 시험 날짜가 비밀이다. 이것도 교사마다 급별마다 다른데 어떤 교사는 예고하기도 한다. 타 반, 타 학교랑 비교하지 않으므로 교권 절대 존중된다.

과외는 유급 낙오자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OECD 학력 평가에서는 낮지만 독일 교육은 중하위권 상향화교육이 우선 목표이며 이들은 낙오되면 구제책 없어 학교가 최선 다해 낙오 방지한다. 학교는 우등생만을 위한 곳 아니라는 철학이 있다.”

위 내용이 전체적으로 학생의 행복 지향, 협력 지향, 공존 지향적 교육이라는 점을 볼 때 우리의 과도한 경쟁 지향적 교육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어과에도 위와 같은 요소를 되돌아보며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적어도 입시 문제 풀이 중심이 아니라 자유롭게 읽고 표현하고 서로의 말과 글에 공감하는 국어 수업이 되도록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4.1.2. 유대인의 하브루타 토론 교육

우리나라의 교육은 과거의 주입식, 강의식 교육 일변도에서 교사들의 노력으로 질문식, 토론식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거꾸로 학습(역진행 학습: flipped learning) 같은 것도 실험 중에 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지식 위주, 문제 풀이 위주의 구태의연한 수능 대비 문제풀이 교육이 지배하고 있어 이상적 교육이 설 땅을 잃어버린다. 여러해 전부터는 EBS 방송교재를 독점적으로 구매해 문제풀이교육을 강요하고 있어 더욱 문제이다. 질문법과 대화법을 통한 토론식 교육을 강화하려면 서구의 토론 교육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수능 대비 객관식 평가 체제가 축소되고 입시에서 해방된 주관식 서술 평가가 확산

되어야 한다. 최근 부산 교육청에서 객관식 평가를 폐지한다고 하는 계획을 선언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과 같은 토론식 교육을 활성화하면 좋을 것이다.

유대인의 창의성을 높이는 비결은 가정 토론 교육이다. 유대인이 노벨상의 30%를 수상하는 비결은 그들의 유대교 신앙은 물론 가정 토론교육인 ‘하브루타’에 비결이 있다고 한다(전성수 2012). 모세오경(구약)과 탈무드의 내용을 토대로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가족 토론은 우주와 자연과 사회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신비와 통찰력을 갖게 하는 질문 교육으로 아동의 두뇌를 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토론으로 유명하다. 최근 한국에서도 하브루타 교육이 교사 연수로 보급되고 있음은 긍정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4.1.3. 국제 논술(IB,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한국의 국어교육이 국제화되는 데서 가장 절실히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서구의 각종 제도 문물을 도입하면서 정작 서구의 토론 논술 교육은 수용하지 않는 점이다. 그리하여 학교 제도에서 수십 년간 객관식 4지 문항이나 5지 문항 방식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학생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는 주관 논술식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식 평가제도인 수능 체제는 대개혁이 필요하다. 대입선발제도가 이미 입학사정관제 전형, 능력 중심의 선발을 추구하므로 대입 수능의 객관식 비중은 낮추면서 대학 자체의 보고서에서 주관식 평가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식 교육을 줄이고 학생의 창의성을 기르는 주관식 논술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통용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만든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논술 교육을 국어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만하다. IB 교육은 교과간 장벽을 없애고 융합교육을 추구하여 창의적 시각을 기르는데 유용하다. 최근에 일본 문부성이 일본 공립학교에 교육혁명 차원에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선언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IB 교육과정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 기구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관장하는 국제 공인 교육과정이다. 채점센터는 영국에 있고 세계 각지에서 지역별 거점 센터가 관리·지원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원래는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늘날은 IB학교의 절반 이상이 지역의 공립 또는 사립학교라고 한다.<sup>17)</sup> IB 교육과정은 다음 4개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

- ① IB PYP(Primary Years Programme): 3세 - 12세 학생용 유·초등학교 과정
- ② IB MYP(Middle Years Programme): 11세 - 16세 학생용 중등학교 과정
- ③ IB DP(Diploma Programme): 대학입학 2년 이전 단계 학생용(고2, 3학년) 과정
- ④ IB CC(Career-Related Certificate): 16세 - 19세 학생용 직업 관련 기술 과정

IB 교육과정은 국제화 의식을 함양한 세계 시민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하는데 IB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은 ‘IB의 사명선언’과 ‘IB 학습자상’에 잘 드러나 있는데 21세기 융복합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라 하겠다.<sup>18)</sup>

17) 한국 내에서는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일부에서 이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2011년에 지역학교로는 처음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가 IB DP(Diploma Program)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장경미 2017: 34).

18) [www.ibo.org](http://www.ibo.org) 참고.

[IB 사명선언(IB Mission Statement)]

IB는 타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호기심 많고 총명하며 배려심 있는 학생들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IBO는 국제적인 교육과 엄격한 평가로 구성된 도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학교, 정부, 국제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학생들을 보다 더 활동적이고 베풀 줄 알며, 차이가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평생 학습자로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sup>19)</sup>

[IB 학습자상(IB Learner Profile)]

- Inquirers(탐구하는 사람): 자기주도적 학습자
- Knowledgeable(지식을 갖춘 사람): 중요 쟁점의 학습 통찰자
- Thinkers(생각하는 사람): 비판적, 창의적 사고로 합리적, 윤리적 결정자
- Communicators(소통하는 사람): 여러 언어로 소통하고 정보 이해하고 협업에 능한 자
- Principled(원칙 있는 사람):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책임지는 사람
- Open-minded(열린 마음의 사람): 자신의 문화 역사 사랑하고 타 공동체 존중하는 자
- Caring(배려할 줄 아는 사람):공감 능력 높고 타인 위해 헌신하는 자
- Risk-takers(위험 감수하는 사람): 용기와 독립 정신의 소유자
- Balanced(균형적인 사람): 지적, 정서적, 육체적 균형의 건강한 소유자
- Reflective(성찰하는 사람): 자기 성찰하며 자기 계발에 힘쓰는 자

특히 IB 교육과정이 교과별 장벽을 없애고 융합 교육을 함은 앞으로의 융복합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IB 인가 학교가 될 필요도 없이 IB 프로그램의 정신을 참고하여 학기별 프로젝트나 논술 경연대회, 독서와 작문의 융합 과제로 IB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2013년에 문부과학성이 IB 교육과정을 공립학교 교육에 도입한다고 선언하여 IB 교육과정과 시험을 일본어로 번역했으며, 2016년 11월에 첫 IB 대입시험을 치렀고, 2018년까지 200개 공립학교에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미 일본 모든 대학에 국가 교육과정 및 국가 대입시험인 센터시험을 거치지 않고 IB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대입 허용을 승인하였고 일본 정부는 교사 교육과 채점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sup>20)</sup>

19) <http://www.ibo.org/about-the-ib/mission/>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aims to develop inquiring, knowledgeable and caring young people who help to create a better and more peaceful world through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respect. To this end the organization works with schools,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evelop challenging programmes of international education and rigorous assessment. These programmes encourage students across the world to become active, compassionate and lifelong learners who understand that other people, with their differences, can also be right.

20) 2017년 3월 29~3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IB 세계학회가 33개국 15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렸는데 이는 일본 교육혁명의 선언과 같았다고 한다. 아키시노 왕자가 미래 세대 역량과 전인적 교육을 구현하는 세계적 수준의 IB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와 일본에서의 도입에 대한 기대를 강조했고, 문부과학성에서는 IB의 공교육 도입을 200개 학교를 넘어 지속적으로 확산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 문부성 관계자들은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를 내야 하는 국제학교에서나 받을 수 있는 IB 교육과정을 국가가 나서서 공립학교 학생들이 무료로 받게 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이해정(2017), “일본은 교육혁명 시작했는데 한국은 구한말인가” [매경의 창] 칼럼(2017.4.23.) 참고.



최근에 일본은 애국교육의 경향도 보여 준다. 원래 일본의 근대화 발전의 원동력은 서구 문명을 학습하여 수용하되 서구 문명에 동화되기를 꺼려 서구 문명의 유입에 대응하여 ‘교육칙어’를 제정하고 일본 전통을 수호하고자 천황을 중심으로 애국심 고취의 국가교육을 한 결과이다. 그것이 천황 우상화와 군국주의를 통해 외국 침략 전쟁으로 간 것은 비극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국 교육을 통해 선진 문명을 이루어가는 토대를 구축한 것은 긍정해야 한다. 최근 일본은 다시 애국심 고취 교육을 회복하고 있어 우경화의 현상으로도 보이는데 과거 역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 4.1.4. 중국의 고전 중심 어문 교육

중국에서는 ‘어문’ 과목 시간의 비중이 높다. 고전 암송의 독서와 작문과 토론이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초중고교 학년별로 배울 한자 개수도 지정하고 독서도 초등학교 1,2학년 50편, 3,4학년 50편, 5,6학년 60편, 중학교 80편의 고전을 통째로 암송하게 하고 이들 고전을 주제로 매주 한 편씩의 작문을 쓰고 발표하고 상호 토론한 후 다시 완성하게 하여 전통 고전 독서에 기반한 작문 교육에 충실하다. 특히 중국의 ‘어문’ 교육과정에서 독서는 9년 동안에 405만자 이상 읽을 것을 요구하고, 3-6학년에는 매년 16차, 7-9학년에는 14차의 작문 과제를 수행하며, 7-9년에는 45분 안에 500자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하여 계량적, 구체적 목표를 요구한다.

학년	한자 학습량	독서량	고전 암송독서	작문
1-2학년	1600자(800자)	5만자	50편	
3-4학년	2500자(1600자)	40만자	50편	16차
5-6학년	3000자(2500자)	100만자	60편	16차
7-9학년	3500자	260만자	80편	14차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아 평가 시간이 신속한 객관식 평가를 선호할 만한데 오히려 대입시험, 아나운서 선발 시험, 교사 선발 시험, 對外 漢語教師 시험 등 웬만한 어문 관련 시험은 주관식 서술 문항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2년에 공개된 현행 중국 대학 입시 작문 평가 기준도 우리의 대입 논술 기준들보다 구체적이다(조인옥 2014, 2017).

[기본 평가 항목](50점): 주제 적합성, 주제문의 명확성, 내용 충실도, 감정 진실도, 구성 능력, 언어 유창성, 글씨의 정교함, 문체의 적합성

[추가 평가 항목](20점): 깊이 있는 주제의식, 문제 원인 발견, 새로운 관점 제시, 제재의 풍부성, 비유법 다수 사용, 비유법의 수준, 다양한 문장 종류 사용, 수사법 사용, 맥락적 표현, 참신한 견해, 독창적인 사고, 개성적인 문장

위와 같이 평가 기준이 세부적이고 추가 항목 평가(20점)은 채점자의 주관적 평가를 인정해 평가하는 방식이라 주관식 논술 작문 평가의 주관성을 뚝뚝하게 인정하되 주관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세분하였다.

중국의 어문 교육의 특징은 교과서의 주제가 애국심, 자연, 예술, 환경, 역사 등 다양하며 특히 애국심과 민족 및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는 주제가 많다(정혜승 2015: 252-253). 애국심이란 공동체의 국민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정신

이다. 선진국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애국자를 발굴해 영웅으로 묘사해 국민교육의 귀감으로 육성하였다. 우리가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선진국들의 상무정신, 군인정신, 기사도 정신, 사무라이 정신과 같은 국민정신에서 배워야 하며 우리도 화랑도, 선비도, 의병정신, 충무공 정신 등에서 그런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정신, 군인정신, 호국정신을 상무정신으로 갖추어야 한다.

중국의 ‘어문교육과정’에서는 소학교 1,2학년 50편, 3,4학년 50편, 5,6학년 60편, 중학교 80편 등 총 240편의 고전 필독 목표를 설정하고 136편(소학교 1-6학년 75편, 중학교 61편)은 구체적 목록을 제시하여 암송하게 한다.<sup>21)</sup> 중국이 초중등학교에서 고전교육을 엄청나게 하는데 비해 우리는 초중고교의 고전 제재는 임의적, 산발적, 단편적 수준이라 비체계성이 두드러진다. 앞으로 고전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모여 민간 주도 차원으로 고전 독서 운동을 장기적으로 벌이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 4.2. 한국어교육의 국제화

한국어는 경제 침체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본과 중국의 시장이 약동적이고 아시아 태평양, 남북 아메리카 지역이 모두 대규모 경제 인구 과밀 지역이라 정치 경제 문화적 역동성이 유럽보다 높다. 앞으로 한국어의 경제 가치도 달라질 것이므로 당분간은 한국어교육의 희망을 논할 수 있다. 먼저 국제화 관점에서 재조정하면 다음과 같이 한국어 학습자 유형을 단순화할 수 있다.

### A.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① 국내 이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KSL): 국내 이주민의 이중언어(모국어와 한국어) 보존 정책으로 이주민과 그 자녀를 이중언어 사용자로 육성 지원해야 한다.

② 외국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KFL): 교육부와 외교부 중심으로 전 세계의 한국학 및 한국어교육을 연계 지원해야 한다.

### B. 해외 한인동포의 한국어교육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한인 동포의 모국어 보전을 지원해야 한다.

위에서 A①과 B는 상황만 다를 뿐 타 언어권에 이주해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점에서 동질적이며 이런 경우 모국어를 유지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졸고 2015).<sup>22)</sup>

- ① 교양 한국어 정립: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 ② 국어 어문 규범의 정비: 익히기 쉬운 어문규정 정비
- ③ 세계 한국어(World Korean)의 정립: 전 세계 한민족 공동체 구축, 한인 실태 조사
- ④ 한국어 표준문법과 교육문법의 확립: 어려운 문법도 쉽게 설명하고 전달
- ⑤ 언어권별 학습자 맞춤형 구축과 대조 문법 구축
- ⑥ 언어권별 한국어 교수학습의 경험 축적과 이론화 및 교수학습법의 혁신

21) 중국의 어문교육과정인 ‘語文教程標準’의 하위 영역은 5대 영역인 “식자와 글자 쓰기(識字與寫字)”, “열독(閱讀)”, “사작(寫作)”, “입말교제(口語交際)”, “종합성 학습(綜合性學習)”으로 나뉜다. 필독 목록이 2011년 개정 교육과정 전에는 소학교 70편, 중학교 50편 총 120편이었는데 2011년 교육과정에서는 소학교 75편, 중학교 61편 총 136편이라 16편이 늘어났다.

22)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는 박창원(2009), 박갑수(2012, 2013)도 참고하라.

⑦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한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한국어교육학의 이론 정립과 외국어교육 이론에 밝은 한국어 교원 양성이 필요하다. 커민스(James Cummins)는 언어능력을 일반적 언어소통능력을 뜻하는 기초소통능력(생활언어, 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과 교과 학습을 위한 교과언어능력(학습언어, 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으로 나누었다. 최근에는 커민스의 이 분야 용어가 변화하여 다음 세 가지로 바뀌어서 이런 이론의 변화에 맞춘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Cummins 2001:65).

① 회화 능력(Conversational Fluency, CF): 일상 회화 능력으로 2-8세에 발달한다. 가정과 학교 환경을 통해 고빈도 어휘와 문형을 익히면서 1-2년이면 습득한다.

② 변별적 언어능력(Discrete Language Skills, DLS): 개별적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알파벳이나 한자와 같은 문자 학습(필기체, 필순, 철자법 등)은 읽기나 독습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 초등학교 1-2학년기인 7세 전후로 익힌다. 한자는 중장기적 학습기간이 필요하지만 한글, 알파벳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다.

③ 교과언어 능력(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ALP): 일상회화가 아니라 학습어휘, 학과별 전문 용어, 추상적, 논설 표현 등 고도의 지적 언어를 습득하는 단계로 다독과 다작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는 목표어 학습을 시작한 후 5년이 걸린다.

재외동포들은 소수언어인 한국어를 가정에서 사용해 보전하도록 힘쓰고 지역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인정되도록 거주국가, 거주지역의 교육청과 학교 당국을 설득하여야 한다. 한국학교에서는 열정만으로 가르치는 시기는 접어야 하며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의 가정언어인 한국어는 학교에서 미개 종족어로 비쳐져 소멸하기 쉽다.

지식기반사회를 향한 국제화한 교육,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언어교육의 정책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다언어,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을 커민스(Cummins 2000)는 다중문해력(multiliteracy) 교육이라 한다. 다중문해력 교육이란 다양한 다문화 아동들이 학교에 가정 민족 문화의 요소들을 갖고 와서 각 가정 배경의 다문화, 다언어 양상을 IT 기기를 활용해 체험하고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 동포들의 한국어 보전 교육도 중요한 과제이다. 해외 이주를 하다 보면 아버지들이 직장생활에 바빠 어머니가 자녀의 모어 보전을 책임지게 되는데 어머니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말 한국학교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오지, 벽지의 한인 가족은 자녀의 한국어 보전이 어렵다. 이런 경우까지 고려할 때 해외동포들은 가정에서 모어 보전 교육에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애국애족 차원의 모국어 교육이 되기보다는 이중, 다중언어교육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공적 한국어 전승 방법으로는 어머니가 아기와 정서 접촉을 유지하면서 한국어로 대화하고, TV 시청보다 어머니와 함께 말하기를 우선하며, 가정에서 한국어 모어 유지 원칙을 지켜 아이가 아버지와 현지어로 대화하고 어머니와는 어머니의 모국어(한국어)로 대화하도록 훈련하면 대체로 성공적으로 한국어를 전승시킬 수 있다. 물론 한국어 이야기책 독서와 한국어 영상물도 유지하여 1일 한국어 독서 유지하며 한국어 학습 동기를 꾸준히 유지시킴이 중요하다고 한다(박정은 2007). 이런 논리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어머니의 모어를 자녀에게 전승하여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재외동포의 한국어 전승 교육은 위기에 빠져 있다. 주말에 보내는 한국어학교(한글학교)의 교실은 학습 동기 없는 아이들의 휴게소화하거나 무질서하기도 하여 교사들의 애로가 크다. 이를 박정은(2007:163)은 “불가사의한 교실 풍경”이라고 하였다. 부모의 인식 부족과 동기 없음, 교육방법과 이중언어에 대한 바른 정보 및 가정 지도법의 부족, 가족 소통과 협조의 부족, 학교의 모어 교육 철학 부족, 정규교육 이외의 한국어교육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다(박정은 2007:165)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과 한글의 오묘함은 한국어교육의 학습 동기로 잘 활용해야 한다. 외국어학습의 성패가 학습 동기의 유지에 달렸다는 점에서 주말에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한국학교로 와야 하는 한국계 자녀들에게 한국어의 가치와 의미를 확실히 알려 한국어 학습의 동기와 활력을 평소 꾸준히 자녀들에게 고취해야 하며 한국학교들도 학습 동기를 강화해야 한다.

언어 활력(ethnolinguistic vitality)의 개념은 랜드리와 얼라드(R. Landry & R. Allard, 1992)에서 보이는데 그들은 언어 활력의 요소로 ① 인구 자본(demographic capital: language population, 사용 인구수), ② 정치 자본(politic capital, 정치 영향력), ③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 경제력), ④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 문화 수준)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어는 네 요소를 고르게 갖추어서 언어 활력이 매우 높다.

아울러 전 세계 2000여 한국학교와 150여 세종학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이중언어/제2, 제3 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기지가 되어야 한다. 현지 대학의 한국어교육, 방학 집중교육, 모국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등도 한국어 국제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 밖에 한국어교육의 국내외 학자들의 국제간 공동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와 현장 교육자가 한 데 연구단위가 되어 교육 경험과 교육 이론을 나누는 공동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열악한 한국어교육 환경에서 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의 경계 구분에 너무 엄격하지 말고 국가간 모어교육 정책과 실태를 비교 연구하고 언어권별로 외국어교육 차원의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도 협력 연구가 많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별 한국어교육학회가 결성되어 활발해져야 하지만 외국에 있는 전국 단위의 한국어교육 전문학회는 미국 ICKL, AATK, 중국 조선어교육학회, 일본 조선어연구회 정도밖에 없어 언어권별 한국어교육 학술 공동체의 설립과 발전은 아직도 미흡하다. 요즘은 IT 기술이 발달해 비행기를 타고 오가지 않더라도 화상 세미나인 Webinar도 가능하므로 그런 사이버 학술 교류도 활발히 추진되면 좋을 것이다.

## 5. 맺음말

일제의 질곡을 거쳐 민족어의 명맥이 끊길 즈음, 기적같이 찾아온 해방으로 다시 시작한 대한민국이 건국 70년 여정 끝에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일어난 한민족이 피, 땀, 눈물로 이룬 문명사의 기적이다. 국어교육은 국민의 문식성(문해력 literacy), 정체성(identity), 도덕성(morality), 인문성(인성, 교양; humanity) 함양으로 이 기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으로 모든 경계와 기득권과 권위를 혁신하는 융복합의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국어교육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구, 사고, 지식, 예술, 인성 교과로 인식되어온 국어과의 단선적, 병렬적 교과관도 디지털 언어생활 시대에 교과간 융복합 요구에 맞춰 외국어교과, 도덕 윤리과, 사회과, 과학과, 예술 교과와의 융복합 교육을 주도하는 신교과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황폐함을 극복하려면 인문학적 전통 국어교육의 존속도 여전히 중요하여 溫故而知新의 지혜가 요구된

다.

지난 70년간 성취된 것으로 여긴 문식성, 도덕성, 정체성, 인문성도 전 지구적 다문화사회의 도래로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 속 문맹자들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신문식성을 함양하고, 가족해체·다문화·양극화·정체성 혼돈의 신불통 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적 통합의 신정체성을 확립하며, 디지털 폭력·테러·범죄 사회의 황폐화를 극복하기 위한 신도덕성을 함양하고, 정보화 시대의 인간 소외 극복을 위한 신인문성(신교양)도 함양하여야 한다.

국어교육의 전통 국어교육의 중심 위에서 객관식 수능 평가체제를 청산하고, 독일식 행복교육, 유대인의 하브루타 토론교육, 중국의 고전 암송 독서 및 작문 교육, 일본공립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융복합 교육인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이끌어야 한다. 한국어교육도 10대 무역대국의 성취에 자신감을 갖고 세계 표준 한국어와 표준 문법 체계를 수립하고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법, 평가체계의 지속적 혁신을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등이 정책으로 선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국어원(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3),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4), 자국어 능력 실태 조사와 활용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5), 국민의 언어의식조사.
- 김봉순(2004), 독일 자국어교육의 현황, 국어교육학연구 21, 195~230, 국어교육학회.
- 김종서(1964), 한국의 문맹률 검토, 교육학연구 12, 한국문해교육협회(2005) 재록.
- 김종철 외(2014), 국민의 국어 능력 조사 결과 분석, 국어교육연구 33, 39-73,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주환(2015), 국어교과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현실 :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9, 93-116, 국어교육학회.
- 나카지마 카즈코 편저(2012), 이중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캐나다, 미국, 일본의 연구와 실천, 한글파크.
- 민현식(2011), 국어 교육과 이념의 문제, 한국어문교육 10권, 177-235,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민현식(2012), 한국어문화교육의 제반 문제, 한중인문학연구 35, 1-27, 한중인문학회.
- 민현식(2014), 한국의 대외 한국어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국어교육연구 34, 119-17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15), 국어교육과 생애주기(평생)교육의 학제적 접근: 평생국어교육의 문해력 증진을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50-1, 5-46,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16), 국어교육의 철학과 정책, 국어교육학연구, 51-2, 5-52, 국어교육학회.
- 박성숙(2010), 풀찌도 행복한 교실: 독일교육 이야기, 21세기북스.
- 박인기(2016), 미래 사회 국어능력과 국어교육의 혁신, 새국어교육 109권, 191-218,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정은(2007), 다문화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이주가정과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일지사.
- 박창원(2009), 한국어의 정비와 세계화, 박문사.
- 박갑수(2012), 한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역락.

- 박갑수(2013), 재외동포교육과 한국어교육, 역락.
- 서수현(2015), 중국의 어문교육과정 분석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58, 5-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서현석(2016),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국어교육 연구의 과제, 국어문학 61, 295-317, 국어문학회.
- 양동일·김정완(2016),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루타 독서법, 도서출판 예문.
- 엄 훈(2012), 학교속의 문맹자들, 우리교육.
- 염돈재(2010),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 윤여탁 외(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 출판문화원.
- 이병규(2015), 매체와 매체언어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탐색, 한민족문화연구 49, 95-119, 한민족문화학회.
- 이복자(2010), 한국과 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삼형(2012), 국어교육 연구 60년의 회고와 전망, 국어국문학 161, 135-166, 국어국문학회.
- 이정복(2017), 사회적 소통망(SNS)의 언어문화 연구 21세기 언어의 화두,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총서 38, 소통.
- 이혜정(2017), “일본은 교육혁명 시작했는데 한국은 구한말인가” [매경의 창] 칼럼(2017.4.23.)
- 이희수 외(2001),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비교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 외(2002),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재 역(1997), 문명의 충돌, 김영사[Samuel P. Huntington(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Georges Borchardt].
- 임철성(2017), 디지털 매체와 국어교육, 한글학회 전국국어학 학술대회(2017.5.12.) 자료집.
- 임효례(2006), 한·중 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경미(2017), IB PYP 교육과정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BK21+ 창의적 국어교육 미래 인재 양성 사업 팀 제10회 학술대회(2017.4.26.) 자료집, 33-5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전성수(2012),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 두란노.
- 정혜승(2015), 중국 초등학교 어문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분석, 국어교육연구 59, 245-270, 국어교육학회.
- 조인옥(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 텍스트에 나타난 모국어 영향 특성 연구: 중국 산둥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인옥(2017), 한·중 논설 텍스트의 개념과 논거의 특성 비교: 중국인 학습자의 작문 교육 배경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18-23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미래 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2010),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 Literacy in History, Social Studies, Science, and Technical Subjects*, U.S.A.
- Cummins, J. (2000), *Language, Power and Pedagogy - Bilingual Children in the Crossfir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ummins, J. (2001), *Negotiating Identities: Education for Empowerment in a Diverse Society*, L.A.: California Association for Bilingual Education.
- Landry, R. & Allard, R.(1992), Ethnolinguistic vitality and bilingual development of minority and majority group students, In W. Fase et al. (eds.) *Maintenance and Loss of Minority*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s, pp. 223-251.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Purpura, James E. (2004), *Assessing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gg, Caroline(2015), *Exploring Digital Communication: Language in Action*, Routledge,